

고이즈미 8·15 도발

‘분노’ 하는 아시아

‘사무라이식 오기’ 최악의 선택

중외교부 일본대사 소환 강력 항의
신화통신 “고이즈미 주판 잘못 놓았다”

중국은 15일 리자오싱(李肇星) 외
교부장의 미야모토 유지(宮本雄二)
주중 일본대사 긴급 소환과 외교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고이즈미 준이
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야스
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주요 언론
도 긴급 논평기사에서 고이즈미 총리
의 ‘8·15 신사참배’를 일제히 비난하
는 한편 앞으로 중·일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분석했으며,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르탄(日壇)
로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베
이징시민 30여명이 약 20분간 항의집
회를 갖기도 했다.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미
야모토 대사를 외교부로 긴급 소환,
중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일본정
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은 역사의 조류에 순응해
중·일관계가 조속히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
라고 요구했다.



중국인 시위대들이 15일 오전 베이징에 있는 주중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항
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위) 옛 일본군 복장을 한 일단의 일본인들이 15
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 문을 통과하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리 부장과 외교부 성명은 중국이
일본 군국주의의 대의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국이라면서 일본정부가 이러한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이 전후 중·일관계를 회복·발전시
키는 정치적 기초이자 양국이 공동으
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고이즈미 총리가 잘못된 입장
을 고수하면서 계속 중국 인민의 감
정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해 양국이 체
결한 (중·일공동성명 등) 3개 정치문
건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국
제사회와 일본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
는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이 평화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는 국제적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한편 신화통신은 “고이즈미가 주판
을 잘못 놓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억지 논리로 재차 신사
를 참배해 스스로의 이미지에 더 짙은
먹칠을 했다고 지적하고 그는 일본과
아시아 관계사에 있어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싱가포르·대만서도 비난 쇄도

싱가포르 외무부는 15일 성명을 발
표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 강행
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남동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
아의 관계강화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를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점령했으며, 대략 8만명
가량의 싱가포르 민간인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됐다.
홍콩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강행 소식이 전해진 뒤 친(親)
중국 홍콩인들과 반(反) 일본 단체 회
원 30여명이 거리로 뛰어나와 행진하
면서 일본을 비난했다.
중국의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군도) 지키기 행동모임의 의
장인 데이비드 고는 “고이즈미의 참
배는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는 데
목적은 뒀다”면서 “고이즈미는 곧 물
러나지만 그의 참배 강행 정신은 범
추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동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
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
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동아시아의 평
화와 안정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
면서도 “개인의 의견 표현은 존중한
다”고 말했다.
대만은 자국내 일본 대사를 소환한
한국,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온건한 반응을 보였다.

아베, 자민 총재선거 때 ‘개헌’ 명시 방침

차기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로 가장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
장관이 총재선거 출마시 발표할 정권
공약에 헌법개정을 명시할 방침이라
고 도쿄(東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문안은 앞으로 조율을 거
치게 되지만 자주헌법 제정이 자민당
창당 이후의 숙제인 점을 들어 개헌을
위한 당의 관심과 법정비의 필요성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개헌 문제가 쟁
점중의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
다. 아베 장관은 지난 1993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자주헌법 제정을 정치신
조로 내세워왔으며, 자민당이 작년
신헌법 초안을 작성했을 당시 기초위
원회의 전문(前文)소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맡기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는 또 최근 출간
한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현행
헌법의 전문이 ‘패전국으로서 연합국
에 대한 사과의 징표’와 같은 것이라
고 지적, 자민당 결성의 최대 목적
가운데 하나인 자주헌법 제정의 필요
성을 호소했다.
일본의 헌법개정론 중·참 양원의 3
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발의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돼 있다.

이스라엘-헤즈볼라 ‘불안한 휴전’ 남은 과제

평화유지군 치안권 확보 관건

유엔의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결의로 5주간의 전쟁은 가까스로
중단됐지만, 레바논의 평화 회복
은 앞으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
이다. 휴전 결의에 뒤이어 해결돼
야 할 과제 및 이를 둘러싼 쟁점은
다음과 같다.
◇휴전이 유지될까=휴전에 임
박해서까지 교전을 벌이긴 했지만,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선에서
는 시간에 맞춰 포성이 멎었다. 그
러나 휴전이 틀림없이 유지될 것
이라는 장담은 하지 못한다. 이
스라엘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배
치돼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할 때까
지는 남부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헤즈볼라
는 이스라엘군이 레
바논에 남아있는 한 이들에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유엔 평화유지군 언제 오나
= 유엔군과 레바논군이 남부 레바논
을 접수하기 시작하려면 최소한 1
주일만 걸린다는 게 외교관들의 전
망이다. 이스라엘군은 그 다음에
야 자신들이 22년간 점령했다가
지난 2000년 철수했던 땅에서 군
사를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평화유지군을 이끌 태
세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
들은 프랑스가 초기에 2천명의 병
력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병 참가국들은 병력을 1만5천명
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스웨
덴 등이 파병 의사를 표명했다.
◇평화유지군 파병논의의 순환하
나=프랑스는 14일 취약한 휴전
상태를 굳히기 위해 “가능한 빨리”
평화유지군이 레바논에 배치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대변인을 통
해, 현재 레바논 남부에 주둔해 있
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증강 배치와 관련, 유엔 외교관들
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지난주
독일 대변인이 정당 차원에서 레
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에 기여하기
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했다. 러시
아는 평화유지군 참여 여부를 아
직 결정짓지 못한 상태다.
◇또 다시 전쟁하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가설들이 나
오고 있다. 헤즈볼라가 재무장하
고 레바논에서 거점들을 유지한다
면 싸움은 계속된다는 정서가 형
성되고 있다. 또 평화유지군이 ‘무력
하다’고 입증된다면 또다시 레바
논을 침공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 일간 가디
언 인터넷판은 15
일 만약 이런 상
황이 벌어진다면
평화유지군-레바
논군은 ‘샌드위치 신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적대행위가 재
발했을 경우, 이들은 철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이
주둔하는 한, 전쟁을 막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논리이
다.
만약 이스라엘이 세바 팜스 등
레바논 남부에서 완전히 철수하
고,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지 않
고, 모든 레바논 출신 수감자들을
석방한다면 헤즈볼라가 공격을
재개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다.



휴전으로 핀 ‘사랑의 결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발효된 14일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50쌍의 새 유대인 부부가 합동 결혼식을 통해 탄생했다. 이
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교전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북부 출신들이다.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주)태양주택개발 TEL(062) 262-0606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매월 1일, 15일 개강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공무원 전문강좌
수시접수증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개강
문제가 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매월
경철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1일

곽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교육학/학내영 선생
수학/임대성 교수
생물/김지호 교수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유이교육과정/임미선 선생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대비강좌
MEE/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면접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면접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면접대비-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동부경찰서) 개강: 8월 1일 ☎ 227-8088